

“정우영 왔으면 어땠을까? 궁금”

정정용 감독, U-20 월드컵 결산서
“플랜 A로 갖고 있는 것 이용하려
공격수들을 경쟁시키려 했다”



U-20 축구대표팀 코칭스태프 결산 기자회견이 열린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정정용 감독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뛰었으면 어땠을까. 이 질문에 정정용 감독은 “결과가 이렇게 되니 나도 궁금하다”고 흥미를 보였다. 한국은 16일 폴란드에서 끝난 대회에서 한국 남자 축구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일본, 세네갈, 에콰도르 등 경쟁한 이들을 쓰러뜨리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엔트리에 뽑힌 21명 모두 충분히 자기 몫 이상을 해했지만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정우영의 출전 불발이 대표적이다. 당시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었던 정우영은 구단의 반대와 이적 문제가 겹치면서 팀에 가세하지 못했다. 20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 감독은 “정우영은 플랜 A였다. 정우영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하려고 했다. 김현우가 수비, 이강인이 미드필더를 맡고 정우영 등 공격수들을 경쟁시키려고 했다”고 최초 구상을 털어놨다. 정우영은 정 감독 측에 꼭 필요한 선수였다. 정 감독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직접 독일

야기 했었다. 4강까지 고려해 아르헨티나전부터는 정우영을 합류를 시키려고 했다”면서 “뒤에 벌어진 일(이적)들이 있기에 ‘선수를 위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우영과 함께 하겠다는 구상은 틀어졌지만 다행히 이강인(발렌시아)은 잡을 수 있었다. 발렌시아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정 감독은 “강인(이)와 (스페인) 공황에서 만났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절실하고 절박함이 있더라. 꼭 뛰고 싶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우리가 4주 전 소집을 하는데 미리 와서 피지컬을 끌어올리자고 했다. 본인도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어했다. 본인의 과한 모습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힘들 정도로 열심히 했다. 이해를 시키면서 맞춰간 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지난 17일 귀국한 정 감독은 쏟아지는 행사에 연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날 청와대 만찬을 마지막으로 U-20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친 그는 본업으로 돌아가 축구 발전을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했다. 정 감독은 “현지에 있을 때는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 분위기를 실감하지 못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국민들이 20세 대표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해줬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너무 감사드린다”면서 “받은 걸 되돌려 드릴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 유소년 정책부터 잘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MLB 추신수 멀티히트... 4타수 2안타 1볼넷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 히트를 때려냈다. 추신수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1에서 0.285로 상승했다. 전날(19일) 클리블랜드전에서 3타수 무안타 1볼넷으로 침묵해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중단됐던 추신수는 이날 멀티히트를 작성하며 타격감을 조율했다. 지난 12일 보스턴 레드삭스전부터 시작된 연속 출루는 9경기로 늘었다. 첫 타석에서 안타가 터졌다. 추신수는 0-5로 뒤진 1회말 클리블랜드 선발 아담 플러코와 풀 카운트 승부를 벌여 내야 안타로 출루했다. 타구를 잡은 2루수 제이슨 컵니스의 송구를 1루수 카를로스 산타나가 잡아내지 못했고, 그 사이 추신수가 1루를 밟았다. 후속 타자들이 범타로 몰려나 홈은 밟지 못했다. 1-7로 끌려가던 3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2루수 팅블로 돌아섰고, 3-7로 추격한 4회 2사 3루 찬스에서는 3루수 뜬공에 그쳤다. 6회 2사 1루에서는 클리블랜드 세 번째 투수 닉 구디에게 볼넷을 골라냈다. 4-10으로 패색이 짙은 9회 무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는 구원 투수 아담 챔버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날렸다. 하지만 이미 클리블랜드로 넘어간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텍사스는 4-10으로 2연패를 당했다. 텍사스는 시즌 성적 39승35패를 거뒀다. 클리블랜드는 시즌 39승34패를 기록했다. /뉴스

“이강인, 구보보다 낫다... 장점 훨씬 많아”

공오균 U-20 축구대표팀 코치, 한일 축구팬 궁금점에

이강인(발렌시아)과 구보 타케후사(레알 마드리드), 최근 한·일 양국을 뜨겁게 달구는 만 18세 축구 선수들이다. 이강인은 스타들의 등용문으로 통하는 20세 이하(U-20)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골든볼로 가치를 입증했고, 구보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과 A대표팀 데뷔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오균 U-20 축구대표팀 코치는 연령대 대표팀을 지휘하며 두 선수를 모두 지켜봤다. “현재 누가 더 나은가 라는 한일 축구팬 모두가 궁금해하는 물음에 공 코치는 이강인을 택했다. 공 코치는 20일 축구회관에서 열린 U-20 월드컵 결산 기자회견에서 “모든 대표팀 선수들이 잘했는데 생각보다 잘한다고 느



이강인

낫다고 생각했다”는 냉정한 발언을 보면,

팔이 안으로 굽어 이강인에게 후한 점수를 준 것은 아니다. 공 코치는 “과거 구보를 직접 봤다. 그때는 구보가 더 잘한다고 느꼈다”면서 “눈으로 보고 훈련을 하면서 강인이 구보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생각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2년 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신태용 감독을 보좌해 16강행을 일궈낸 공 코치는 이번엔 정정용 감독과 함께 결승이라는 신화를 썼다. 공 코치는 “예전에는 개인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을 꼭 하라보니 아이들이 어떻게 할지 스스로 알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성장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

도내 주말 체육행사 ‘풍성’

22일 학생 핀수영선수권 · 도지사배 남녀 배구대회 등

핀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체육 행사(대회)가 오는 주말에도 예정 돼 있어 전북이 떠들썩할 전망이다. 2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주말인 22일 도내 각지에서 전국 또는 도내 규모의 대회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먼저 대한핀수영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핀수영협회가 주관하는 제27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가 22일부터 이틀간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진행된 다. 같은 기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는 제14회 전라북도지사배 남녀배구대회가 열리는 데 참가인원은 1500여명이다. 부안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서는 약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전북이순현희장배 축구대회가 펼쳐진다. 아울러 육상과 펜싱 등 일부 종목에서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최종 선발대회를 고창공설운동장과 익산시청 펜싱장 등에서 진행한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날이 더워지는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